

하늘 무너지고 땅 솟아나도 염불 쉬지 말아야

대둔산 태고사 주지 정안 스님 



정안 스님은...
1943년 전북 장수 출생, 1966년 임실 죽림사에서 출가했다. 1969년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부터 현재까지 쉬 없이 천일 관음·지장 기도정진을 이어오며 염불수행을 하고 있다. 현재 금산 태고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41년간 관음·지장정근으로 쉬없이 천일정진 이어와

동족상잔 원한 풀고 통일염원 담아 지장정근 시작

오전 내내 비가 내려 여기 저기 교통사고가 난 탓에 태고사 주지 정안(正安) 스님과 의 약속시간이 1시간이나 늦었다. 서둘러 관음전 옆에 있는 거처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스님, 2년만에 뵙습니다. (도천) 큰스님 건강은 어떨신지요?”

“큰스님은 100세의 고령이라 요즘은 직접 일은 안 하지만 여전히 불사를 직접 감독하십니다.”

“도천 큰스님의 분신”이라 불릴 정도로 정진에 열심인 정안 스님은 신도들로부터 “이 세상에 다시 없는 효자스님”이란 찬탄을 받는다. 스님은 1968년 입재 후 41년동안 관음·지장 기도정진을 멈추지 않은 놀라운 정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스님은 3년마다 천일 기도결제를 하고 해제하는 바로 당일, 결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고사는 사시사철 기도정진이 끊어지지 않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스님의 사본정근은 새벽 4-6시, 오전 9시반~12시반, 오후 2-4시, 저녁 6시반~8시반 등 하루 8시간 진행된다. <천수경>과 <금강경> 독송, 지장보살 정근, 축원 등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사시사철 이어진다.

“태고사의 수행 가풍(家風)은 어떤 것입니까?”

“큰스님은 평생 천수다라니로 수행한 수월(경허 선사의 수제자) 큰스님의 가풍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보살도와 일, 참선과 계행이 오롯이 하나인 수행입니다.”

무려 41년 동안 한 도량에서 관음정근과 지장정근을 통해 염불수행에 몰두해 온 정안 스님의 구도과정, 특히 출가동기가 궁금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이듬해 전주공교

화학과를 졸업한 나는 대학입시에 떨어져 장수 고향집에서 3년 동안 놀면서 인생의 허무를 느꼈습니다. 다시 팔공산에 들어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견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약을 먹고 병을 고치는 와중에 더욱 무상(無常)을 느껴, ‘출가를 해서 나도 한번 대도(大道)를 이뤄 중생제도에 나서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죠.”

정안 스님은 24세에 임실 죽림사로 출가하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웠다. 10년 동안 어산(법배)을 익히고, 강원에서 일대시교(一代時敎)를 배운 후 참선으로 깨지겠다고 당찬 포부도 세웠다.

“칠순이 넘은 계은 스님으로부터 3년간 어산을 죽자 사자 배웠지요. 새벽마다 도량석과 종성, 예불을 모신 후 절을 하며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위대하고 위대하고 위대하신 선지식을 친견하게 해달라’고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발원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발원 덕분인지, 정안 스님은 담양 보광사 주지 도광 큰스님을 통해 새로운 구도의 길을 걷게 된다. 1968년 8-10월 석달 간, 정안 스님은 동철 스님의 소개로 담양 보광사에서 다시 행자생활을 했다. 도광 큰스님은 다른 행자 두 명과 함께 매일 법문을 했는데, 그 말씀이 감명 깊게 가슴에 배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광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시 죽림사로 돌아가 법배를 마쳐 배우고 싶다고 큰스님께 말씀을 드리니, 스님은 마침 금산 태고사에 갈 일이 있다며 같이 나가자고 하셨다. 이 길이 바로 태고사 조실 도천 큰스님과 의 숙명적인 인연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것이다.

1968년 10월 말, 도광 큰스님을 따라 도착한 태고

사는 원효 스님이 강건한 호남 제일의 도량이었음에도, 당시만 해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양철로 지은 법당에 부처님만 모셔놓은 정도였다. 오후 2시가 넘어 대혜성 노보살님이 청국장으로 밥을 차려주었는데, 평생 제일 맛있는 공양이었다. 공양을 마친 후 태고사에서 온몸으로 불사중이던 도천 큰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몇 달 전, 담양 보광사에서 큰스님을 처음 뵈 때를 스님은 회상했다.

“이 스님이야말로 진짜 진짜 스님이시로구나. 이 분이야말로 옛날 옛날 스님이시로구나.”

태고사에서 다시 정안 스님을 만난 도천 큰스님은 이렇게 질문했다.

“너, 거기(보광사) 있지 뭐하러 왔느냐?”

“스님, 저 여기 있으려 안 왔어요.”

태고사는 산세가 험하고 일도 많아서 잠시라도 머물러 있는 스님이 없었다.

이튿날 도광 큰스님이 태고사를 떠나는데, 정안 스님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스님은 하는 수 없이 태고사에 남게 되었는데, 도천 큰스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는지 “이런 데서 기도하면 소원이 다 이뤄질테니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고 격려했다.

“처음엔 ‘머칠만 정진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노보살님께서 ‘100일간 기한을 정해 정진을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 분가에 한번 다녀온 후, 음력 10월 보름, 100일간의 관음정진에 들어갔습니다. 100일기도를 마치니,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는 스님이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도천 큰스님께서도 “이번에는 3년간 천일기도를 해보거라. 천일기도를 하면 업도 녹아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신심이 깊어지고 성불도 가능하니, 기도를 잘 해봐라”며 당부하셨습니다.”

정안 스님은 며칠간 갈등을 하다가, 성지인 태고사의 중장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장수 분가에 다녀온 후 이듬해인 69년 4월 보름 사미계를 받고 와서, 5월부터 3년간의 천일기도에 들어갔다. 낮에는 일을 하고 아침·저녁으로 기도정진을 했는데, 낮에는 현산 스님(現 화엄사 선원장)이 대신 기도를 해주었다.

세 번째 천일정진을 마친 9년만에 삼불전이 완공되었고, 이후 3년마다 천일정진이 회향되면서 전각이 하나씩 건립됐다. 결국, 극락보전 산신각 관음전 지장전 백팔계단 종각 선방 등이 천일정진을 시작한 지 40여년만에 모두 지어졌다. 정성껏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실하게 된 것이다. 3년마다 천일이란 기한을 정해 기도정진을 하는 것은 불사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천일정진을 시작할 때는 12년간 관음정근을 했는데, 이후에는 지장정근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6.25 동란을 겪으면서 남북이 서로 죽이는 큰 원결을 맺었어요. 몇 백만 명이 서로 죽인 동족상잔(同族相殘)이 일어났으니, 그 원한을 풀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지장정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정안 스님이 도천 큰스님께 지장정근기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송광사의 구산 방장 스님을 뵈고 오너라” 하셨다. 구산 스님은 법련화 보살님이 시주한 서울 법련사에 매달 울라와 법문을 하셨는데, 정안 스님은 법회 전날 구산 스님을 뵈고 질문을 드렸다.

“지장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고 싶습니까?”

“아주 강한 원을 세우셨네. 지장보살님은 일체중생을 깨우쳐주고 조상 영가를 극락왕생 시키는 원력을 세웠으니, 힘껏 정진해 보시게나.”

구산 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1080독을 세 번 한 이후에 견치를 얻었다는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방장 스님의 격려로 자신감을 얻은 정안 스님은 다섯 번째 천일정진을 지장정근으로 입재하면서 서울 불광사의 광덕 큰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했다. 이날 광덕 큰스님은 지장예찬 법문을 설했는데, 그렇게 신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법요의식을 진정히 염불로 마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庚寅 仲夏 편집인 日江 恒장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지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2,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제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제, 구별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의식집이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송가다비와 재가다비 편이 일체 후 처음으로 시신을 태우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그밖에 도서목록 -

- 영혼과 운명의 비밀(365쪽)
- 불교종합의식 집(393쪽)
- 한국 한양국 전통의식 집(225쪽) 등이 있다.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중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종)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